



연중 제5주일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애로이 지켜 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공동체 소식]

■ 이번 주간 축일

- 02/05(월):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
- 06(화):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 10(토): 성녀 스킴라스티카 동정 기념일

■ 오늘 미사 중 ‘초축복 예절’이 있습니다.

- 봉헌초 값: 5달러/개당.
- 내용: 내용: 제대초와 가정초 봉헌

■ ‘설’ 합동위령미사 봉헌 안내(본날, 2/16)

- 일시: 다음 주일 오전11:00 교중미사 중.
- 미사봉헌 신청: 전례부를 통하여 미리 봉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 미사: 2/14(수) 저녁 7:30
- 내용 : ‘재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이날 단식과 금육을 지킵니다.

■ 가정 십자가에 걸린 ‘성지’를 회수합니다.

- 기간: 2/11(주일) 까지
(2/4, 2/11 바구니 성당입구에 비치)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 안내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 나눔 모금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
-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2/4)	329	216	502	28
차 주 (2/11)	21	511	498	33

■ 전례 봉사자 및 복사

	해설자	제1독서	시중 복사
		제2독서	향 복사
금 주 (2/4)	김주연 세실리아	박태주 로마노	정예진 한나
		김명희 리드비나	정예찬 미카엘
차 주 (2/11)	김명은 안젤라	강영진 라파엘	김정원 안젤라
		한춘희 라파엘라	고평원프란치스코
재의 수요일 (2/14)	박태주 로마노	전용진 로렌스	-
		탁지완 안토니오	-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명희, 정연숙, 박동희
차 주	조경희, 박계숙, 박주연

■ 헌금 봉사자

금 주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차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로렌스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8주일	42명	214 달러	200 달러
(총 1 세대)			

연중 제5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2코린 4,18-

2018년 2월 4일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in Kansas C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kc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Fifth Sunday of Ordinary Time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어 성자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 그들을 결합시키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정신을 심어 주시어, 굳건한 믿음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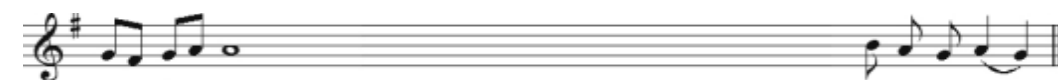


[복음] 마르코. Mk 1:29-39

그 무렵 예수님께서 29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30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31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32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33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예수님께서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5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딴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36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37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났기 때문이다.” 39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제 1 독 서 : 욥기의 말씀입니다. 7,1-4.6-7

화 답 송 :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날날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
-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9,16-19.22-23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9-39

예수님의 꿈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흑백차별 철폐의 물꼬를 튼 인물입니다. 그는 1963년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 운집한 25만 군중에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유명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킹 목사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동분서주하다가 1968년에 반대자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졌고, 마침내 흑백차별의 높은 벽이 무너집니다. 킹 목사가 꿈꾸던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던 하느님의 나라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란 하느님의 자비가 두루두루 미쳐서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세력, 곧 병고와 악령,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는 나라,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어 행복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전파에 필요한 힘을 얻고자 새벽에 홀로 외딴곳에 가서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또한 곳곳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안주하기를 포기하고 거둢 길을 떠나십니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마르 1,38)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놓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꿈이 무산된 듯이 보였지만, 그분의 부활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제자들을 통해 다시 활기차게 전파됩니다. 사도 바오로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

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고, 약한 이들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제2독서)

예수님의 꿈, 사도들을 통해 이어졌던 그 꿈은 우리를 통해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옴처럼 고통 속에서 매일의 삶을 고역으로 여기면서 희망 없이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제1독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 곧 ‘자비로운 하느님이 바로 너희 곁에 계시다’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로운 현존이 구체적으로 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면 좋겠습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존 브릿지 작품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쳐주시는 예수’

사제님? 신부님? - 교계제도 -

‘성직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당에서 만날 수 있는 ‘신부님’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직자의 호칭은 참 다양합니다. 교황, 추기경, 주교, 몬시뇰, 사제, 부제... 평소엔 ‘신부님’, ‘주교님’이라고 부르는데, 미사 중에는 ‘사제’라고 통일이 되어 있으니 무엇이 다른 건지 궁금할 때 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교계제도(敎階制度)’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각 품계(品階)에 임명된 성직자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직자들이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계층을 이루고 제도적인 질서에 따라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계는 넓은 의미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교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성직자들의 위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계제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품권(聖品權, power of order)에 따른 구분은 서품에 따라 주교, 사제, 부제의 세 품계가 있는데 성사 집행이나 전례와 관련됩니다. 재치권(裁治權, jurisdiction)에 의한 구분은 교회의 입법, 사법, 행정권의 권한에 따른 위계입니다. 사목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교계의 다양한 명칭들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호칭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황(敎皇):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로마 교회의 주교입니다.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 주교단의 단장이며 바티칸 시국의 원수입니다. 교종(敎宗)이라고도 부릅니다.

• 추기경(樞機卿): 교황의 최고 협력자이며 교황청의 각성(省)과 기구의 장관이나 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맡습니다. ‘콘클라베’라고 불리는 교황 선출 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집니다.

• 주교(主教): 성품성사의 최고 품계이며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여 교황을 단장으로 하는 주교단을 이룹니다. 교구나 지역 교회를 사목하며, 교구장 주교, 부교구장 주교(교구장 계승권이 있음), 보좌 주교로 임명됩니다.

• 몬시뇰: ‘나의 주인’이라는 뜻을 지닌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칭호로서, 보통 교구를 다스리지 않는 교황청 고위 성직자나 주교품을 받지 않은 덕망 높은 성직자가 교황에게 몬시뇰 칭호를 받습니다.

• 사제(司祭): 성품성사의 두 번째 품계이며, 주교의 협력자로서 미사를 거행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신부(神父)는 ‘주교가 아닌 사제’만을 일컫는 칭호입니다. 교회법에서는 성품성사를 주교품, 탁덕품, 부제품으로 구분합니다.

• 부제(副祭): 성품성사의 가장 낮은 품계로서 성직자 위계의 시작입니다. 사제를 도와 세례, 혼인성사를 집전하고 강론, 성체 분배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미사 중에 부제가 복음을 봉독할 때에는 ‘또한 부제의 영광 함께’로 응답합니다.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교리상식]

성체를 영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미사 때 성체를 정성껏 모시기 위해 지켜야 하는 태도로 공심재(空心齋, Eucharistic fast)가 있습니다. 공심재는 영성체를 하기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 물과 약 외에는 음식과 음료를 삼가는 것을 말합니다.(교회법 제919조 1항) 환자나 노인들은 형편에 따라 공심재를 지키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심재는 마음과 몸을 비워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정성의 표현입니다.

교「교회상식 속품이」 | 바로말 발행